

< 요약 >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황

- '13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1조 4,107억 달러
 - 미국의 테이퍼링 개시로 인한 투자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낙관론에 힘입어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12년 감소세에서 '13년 증가세로 전환
 - '13년 해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 주도로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선진국) 투자정체가 지속되며 '13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8,570억 달러의 유출액을 기록
 - '07년 1.8조 달러의 최대 유출액을 기록한 이후 1조 달러를 하회하는 투자부진이 '13년도까지 이어지며 투자가 정체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유럽의 투자회복과 일본의 투자확대가 북미의 투자 위축을 상쇄하는 모습
- (개발도상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신규 주요 투자자로 부상하며 전년대비 3.2% 증가한 4,541억 달러가 유출되어 역대 최대치 기록
 -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이 세계 20대 투자국에 포함되는 등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유출액의 32.2%를 차지
- (체제전환국) 러시아 에너지기업 Rosneft의 TNK-BP의 지분인수(550억 달러 상당)로 인해 전년대비 85.5% 증가한 992억 달러 유출액 기록
- (주요국) '13년 최대 투자유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홍콩 순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선진국) 전년대비 9.5% 증가한 5,6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로 다국적기업의 선진국 해외법인 앞 유보이익 증가에 기인
 -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 앞으로 대규모 M&A 투자를 실시함에 따라 미국 앞 투자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
- (개발도상국) '12년 이후 투자유입규모가 선진국을 추월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에는 7,784억 달러가 유입되며 역대 최대치 기록
 - 투자액의 54.8%가 아시아로 유입되었으며, 중동, 남미,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투자유입이 증가
- (체제전환국) Rosneft의 TNK-BP 지분인수 중 BP와의 지분교환(150억 달러 상당)으로 인해 전년대비 28.3% 증가한 1,080억 달러의 유입 기록
- (주요국) '13년 최다 투자유입국은 미국, 중국, 영국령버진군도, 러시아, 홍콩 순

2. 진입방식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 황

- 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모두 투자액이 증가
 - '13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6,721억 달러, M&A 투자는 5.2% 증가한 3,48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의 1/3~1/2 수준으로 본격적인 투자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

(2) 지역별 진입방식 동향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은 그린필드와 M&A 모두에서 세계 증가율을 상회하는 투자증가를 기록하며, 해외직접투자 전 영역에서 그 비중을 확대중
 -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12년 이래로 M&A 투자가 그린필드 투자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은 '13년 20대 M&A 거래 중 12개를 차지

(3) 산업별 진입방식 동향

- 1차 산업의 경우 그린필드, M&A 모두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M&A 투자, 서비스업은 그린필드 위주로 투자진입

3. 투자자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사모투자펀드) 중국, 브라질 등 신흥시장 위주로 '13년 1,7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21% 차지
- (국부펀드) '13년 6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부펀드 운용 자산(6.4조 달러) 대비 비중은 2%에 불과
- (국영기업) '13년에 투자증가세로 전환하여 BRICS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약 1,600억 달러를 투자

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유출) '13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4.8% 감소한 292억 달러 기록
 -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중 우리나라 유출액 비중은 '12년 2.3%에서 '13년 2.1%로, 유출액 국가순위는 '12년 12위에서 '13년 13위로 다소 하락
- (투자유입) '13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28.7%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하며 '06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중 우리나라 유입액 비중은 '12년 1.3%에서 '13년 1.6%, 유입액 국가순위는 '12년 34위에서 '13년 25위로 9단계 상승
- (지역별 구성) 개발도상국 앞 투자비중은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세계 대비 선진국 앞 비중이 5.6%p 높고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이 6.3%p 낮음.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특정국가 집중도가 높아, '13년도 투자대상 상위 5개국(미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앞 투자비중이 55.2%에 달함.

- (업종별 구성) 광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비중이 세계 대비 높은 편이며, 세계의 제조업 투자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일정 수준의 제조업 투자를 지속중
- (진입방식별 구성) '13년 그린필드 투자 비중은 77.5%로 세계(47.6%) 대비 월등히 높으며, 최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중임.

III.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

- (총 규모)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4년 1.62조 달러, '15년 1.75조 달러, '16년 1.85조 달러로 예상되며 **완전히 증가할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4」는 '14년 선진국 중심의 투자성장세를 예측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업종별 전망) 선진국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등 사회기반구축 관련사업을 유망산업으로 제시

* 사업지원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

- (국가별 전망) 주요 투자유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순으로 전망 되었으며, 주요 투자유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순으로 예상

IV. 시사점

- '14년 이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되는바, 선진국의 수요에 대응하는 해외투자전략 수립 필요
 -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수혜를 받는 업종 위주로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기존투자를 재편할 필요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업종 다변화 및 현지화 필요
 - 해외법인이 현지수요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현지에 공급하는 서비스업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신규 수요를 개척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익기반을 강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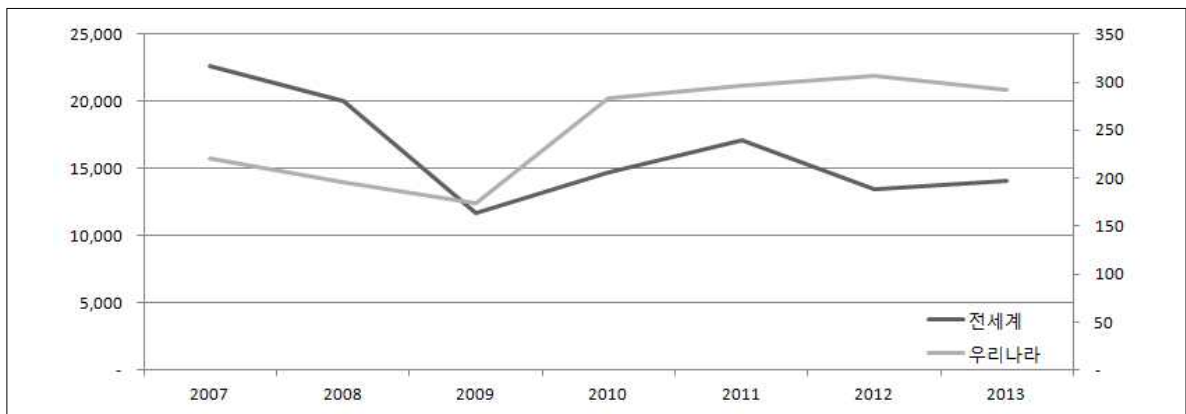
머리말

□ 작성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13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UNCTAD에서 발표한 「세계투자리포트 2014¹⁾」에 따르면 세계 해외직접 투자는 '07년 2조 달러를 초과하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투자가 감소하여 최근 1.5조 달러 수준에서 정체중임.
-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08~'09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며 세계보다 빠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 또한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비중이 '00년 0.4%에서 '13년 2.1%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금액 순위도 '13년 기준 세계 13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1) 세계투자리포트(World Investment Report 2014)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매년 발간하며, 각국의 통계기관(주로 중앙은행이 담당)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및 분석결과를 발표

- 이에, 「세계투자리포트 2014」를 통해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동향을 지역별, 진입방식별, 투자자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본 보고서 및 분석자료 해석시 유의점

- UNCTAD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유출액(outflow)과 유입액(inflow)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유출을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지칭함.
- 「세계투자리포트 2014」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 대해 176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 대해서는 203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 동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차이가 있음²⁾.
 -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의 합계금액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

2)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UNCTAD	221	196	174	283	297	306	295
수출입은행	223	240	207	246	290	280	292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황

- '13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1조 4,107억 달러 기록
 - 미국의 테이퍼링 개시로 인한 개발도상국 중심 투자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기반한 신중한 낙관론에 힘입어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12년 감소세에서 '13년 증가세로 전환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투자액	11,712	14,676	17,117	13,467	14,107	4.8%

-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선진국이 60.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입은 개발도상국이 53.6%의 비중을 차지하며 '12년부터 선진국을 추월³⁾
 - (선진국)⁴⁾ '13년 유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8,574억 달러)에 정체되며, 역대 최고치였던 '07년의 55% 수준을 기록. 유입액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5,6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로 다국적기업의 선진국 해외 법인 앞 유보이익 증가에 기인

지역별 해외투자액 구성

(억 달러)

	유출액	비중	유입액	비중
선진국	8,574	60.8%	5,656	39.0%
개발도상국	4,541	32.2%	7,784	53.6%
체제전환국	992	7.0%	1,080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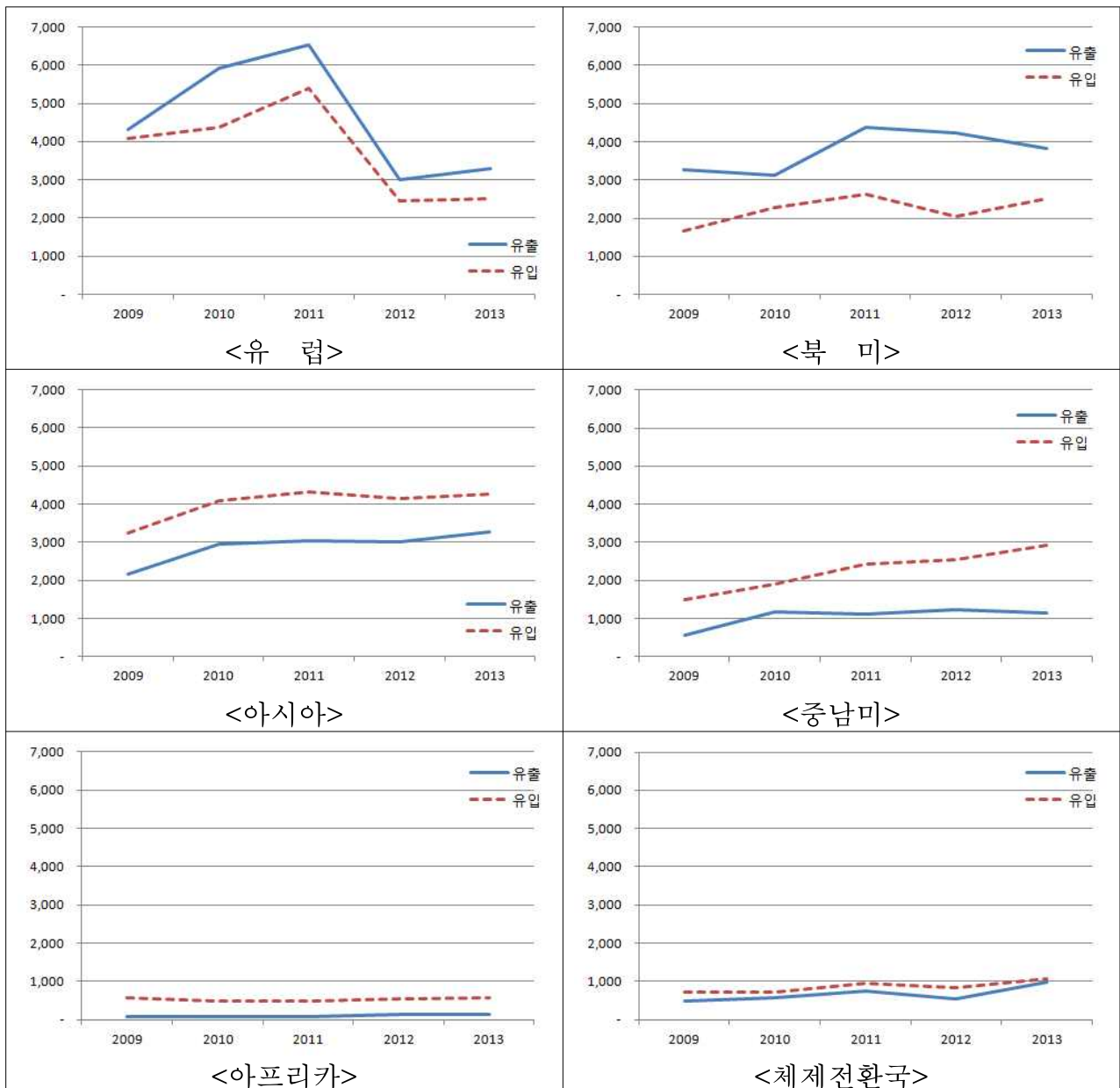
3) 유출액 기준 개발도상국의 세계 대비 비중은 '09년 23.6%에서 '13년 32.2%로 상승하였으며, 유입액 기준으로는 '09년 43.6%에서 '13년 53.6%로 상승

4) WIR에서는 EU 28개국, 비EU 유럽 4개국, 캐나다, 미국, 호주, 버뮤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를 지칭

- (개발도상국)⁵⁾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투자자로 부상하며 유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4,541억 달러를 기록. 유입액은 7,7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유입액의 53.6%를 차지
- (체제전환국)⁶⁾ 러시아 에너지기업 Rosneft의 TNK-BP 앞 투자로 인한 BP와의 지분 교환으로 인해 유출액과 유입액 모두 증가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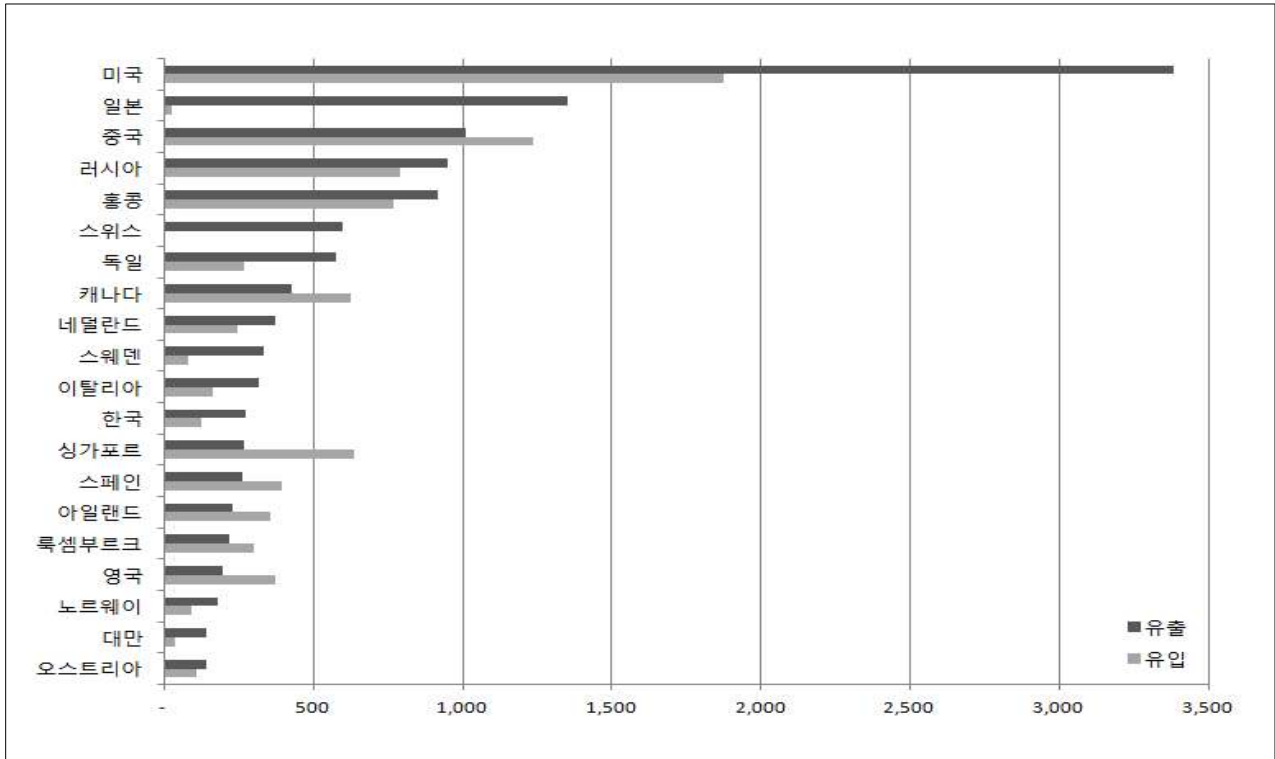


5)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

6)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마케도니아, 조지아, 구CIS 11개국(러시아 포함)을 지칭

20대 해외직접투자국의 '13년 유출유입액

(억 달러)



UNCTAD FDI 통계의 경유 자본(transit FDI) 처리

-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SPE(Special Purpose Entities)를 이용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경유자본으로 인한 투자금액의 이중집계, 투자흐름 왜곡 등의 현상이 발생
- 이에, UNCTAD FDI 통계에서는 주요 경유자본 설립국(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모리셔스, 네덜란드) 통계에서 SPE 관련 수치를 제거한 수치 사용

SPE 포함여부에 따른 FDI 통계 비교

(억 달러)

국가명	유입액		유출액		유입잔액		유출잔액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오스트리아	114	111	139	139	2,863	1,836	3,464	2,380
룩셈부르크	3,673	301	3,636	216	32,048	1,414	38,205	1,816
네덜란드	413	244	1,068	374	38,618	6,701	47,900	10,718

- 한편,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에서도 발생하나, 공식적으로 분리가능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

* 역외금융센터란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의 국가들로서, 금융·외환 등의 거래에 대해 조세 등의 규제를 면제·축소해 줌으로써 비거주자간 금융거래의 중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통칭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① 선진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07년 1.8조 달러의 최대 유출액을 기록한 이후 1조 달러를 하회하는 투자부진이 '13년도까지 이어지며 투자 정체 지속
- 선진국 39개국 중 22개국에서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유럽의 투자회복과 일본의 지속적 투자확대가 북미의 투자 위축을 상쇄하는 모습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유출액 규모	국 가 명
1,000억 달러 초과	미국, 일본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스위스, 독일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 (투자업종) 도시화에 따른 개도국의 신규 수요 개척을 위하여 음식료 제조업, 전력생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광업 투자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증가세 둔화 등으로 감소
- (북미 동향) 다국적 기업의 유보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투자 상황이 증가하며 '13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3,809억 달러 기록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출액	3,083	2,670	3,044	3,967	3,669
선진국	2,028	2,113	2,552	3,067	2,709
(EU) ⁷⁾	1,464	1,401	1,852	2,028	1,664
개발도상국	1,018	554	528	879	969
체제전환국	27	4	△16	17	16
3대 투자대상국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버뮤다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7) 미국과 EU는 상호간 최대 투자파트너로서, '12년말 기준 미국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50.3%를 EU가 차지하며 EU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13.2%를 미국이 차지(59.9%는 EU역내 투자)

-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소재 계열사에서 조달한 자금을 미국내로 들여오며 따라 '13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7.8% 감소한 3,38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대 투자국 지위 유지
- (유럽 동향)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등락을 거듭중으로, '12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54.1% 감소하였으나 '13년에는 9.8% 증가한 2,995억 달러 기록
- (EU)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출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 증가한 3,287억 달러를 기록
- (그외국⁸⁾ 동향) '13년 전년대비 12.9% 증가한 1,478억 달러의 유출액을 기록하며, '11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 시현중
- (일본) 다국적기업의 투자 증가로 '13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357억 달러를 기록하며 '11년 이래 세계 제2위 투자자 지위를 유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출액	1,280	747	563	1,144	1,225
선진국	730	355	297	628	772
(미국)	432	107	91	144	321
개발도상국	547	388	262	513	446
체제전환국	3	4	4	3	8
3대 투자대상국	미국, 영국, 폴란드	미국, 호주, 중국	미국, 중국, 호주	미국, 영국, 핀란드	미국, 중국, 영국

②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전년대비 3.2% 증가하여 역대 최대액인 4,541억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하였으며, '12년 이래로 세계 유출액의 30% 이상을 차지
- 개발도상국 137개국 중 46개국에서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이 세계 20대 투자국에 포함

8) 호주, 버뮤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유출액 규모	국 가 명
1,000억 달러 초과	중국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홍콩, 영국령 버진군도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한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케이만군도, 칠레

- (아시아 동향) 인도를 중심으로 투자액이 전년대비 73.7% 감소한 남아시아⁹⁾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증가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9% 증가한 3,260억 달러 유출
- (동아시아) 최근 유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2년부터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하는 투자 순유출상태가 지속중이며, '13년에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2,361억 달러의 유출을 기록
- (중국) '13년 유출액이 전년대비 15.0% 증가하며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향후 2년내 유출액이 유입액을 추월할 전망.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M&A투자를 활발히 전개중이며 최근 투자자유화 정책으로 향후 유출액도 꾸준히 증가 예상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출액	559	565	688	746	878
선진국	28	70	109	134	135
개발도상국	521	489	567	600	700
(홍콩)	386	356	385	356	512
체제전환국	11	7	12	12	43
3대 투자대상국	홍콩, BVI ¹⁰⁾ , 남아공	홍콩, 호주, 케이만군도	홍콩, BVI, 케이만군도	홍콩, BVI, 케이만군도	홍콩, 미국, 카자흐스탄

- (동남아시아) 전년대비 4.7% 증가한 563억 달러의 유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동지역 유출액의 70% 이상을 차지

⁹⁾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¹⁰⁾ 영국령 버진군도(British Virgin Islands)

- (중남미 동향) 국경간 M&A 감소 및 브라질과 칠레를 중심으로 한 대부투자 감소로 전년대비 7.9% 감소한 1,14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영국령버진군도, 케이만군도 등 경유자본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31% 감소한 33억 달러 수준
- (아프리카 동향) '12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초과한 뒤 '13년에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12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유출액의 약 70%가 아프리카 역내로 투자됨. 주요 투자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임.

③ 체제전환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러시아 석유기업 Rosneft의 TNK-BP 앞 M&A투자로 인해 '13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85.5% 증가한 99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린필드형 투자도 전년대비 87.0% 증가하여 M&A형 및 그린필드형 모두 가파른 성장세 시현
- 체제전환국 17개국 중 5개국에서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연간 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를 지속해온 반면 다른 국가들은 투자규모가 미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출액	557	433	526	669	488
선진국	448	336	411	504	361
(EU)	361	310	381	462	331
개발도상국	61	35	76	88	99
체제전환국	38	49	19	52	28
3대 투자대상국	체코, 미국, 네덜란드	체코, BVI, 네덜란드	체코, 벨리즈, 네덜란드	체코, 네덜란드, 세인트키츠네비스	체코, BVI, 터키

- (투자업종) 주투자자는 러시아의 에너지기업들로서, 자국의 천연자원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가공, 저장 및 운송설비, 유통망 구축 등에 주로 투자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선진국) 선진국 앞 유입액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5,6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전의 43%에 불과한 수준
 - (미국) 아시아 투자자들의 대규모 M&A 투자¹¹⁾로 유입액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1,8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의 투자처 지위 유지
 - (EU)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입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7% 증가한 2,508억 달러를 기록
 - (일본) 전년대비 33.0% 증가한 23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유출액의 1.7%에 불과
- (개발도상국) '09년 이래 4년 연속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인 7,7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세계 유입액의 53.6% 차지
 - (아시아) 서아시아¹²⁾는 최근 정세불안으로 5년 연속 투자유입이 감소 중이나, 그외 모든 지역에서는 투자유입이 증가중으로 '13년에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4,263억 달러가 유입된바, 이는 선진국 앞 유입액의 1.7배 수준
 - (중국 및 홍콩) 전년대비 2.3% 증가한 2,005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며, 중국과 홍콩 합산 기준으로는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 제1위의 유입액 규모
 - (아세안) 전년대비 5.9% 증가한 125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며 '10년 이래 투자증가세 지속
 - (중남미) '09년 이래 17.9%의 연평균 증가율로 투자액이 급격히 유입중으로 '13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2,921억 달러 기록

11) 중국 CNOOC의 캐나다 석유기업 Nexen 인수(190억 달러), 일본 Softbank의 미국 통신업체 Sprint Nextel 인수(216억 달러), 중국 Shuanghui의 미국 육가공업체 Smithfield 인수(48억 달러) 등

12)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UAE, 예멘

- (중미) 벨기에 기업의 멕시코 맥주회사 M&A건(155억 달러) 영향으로 전년대비 84.1% 증가한 490억 달러 유입
- (남미) '12년 남미의 최대 투자처였던 칠레의 투자유입액이 광업투자 철수와 광업투자기업의 유보이익 감소로 전년대비 29.0% 감소하면서 남미 전체의 유입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1,335억 달러 기록
- (아프리카) 정세가 불안한 북아프리카보다 남아공, 모잠비크 등 남아프리카 앞 투자액이 집중되며 전년대비 3.7% 증가한 572억 달러의 유입액 기록
- (체제전환국) 러시아 석유기업 Rosneft의 BP 앞 투자와 관련하여 Rosneft의 주식 18.5%(150억 달러 상당)를 BP 앞 투자대금으로 지급한 거래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3% 증가한 1,080억 달러의 유입 기록
- (최다유입국) 미국, 중국, 러시아, 홍콩, 브라질 순¹³⁾으로, 러시아는 전년대비 287억 달러가 증가하며 '12년 8위에서 '13년 4위로 상승하였음. 우리나라는 25위(122억 달러)로 '12년 34위에서 9단계 상승

최근 5년간 지역별 유입액 추이

(억 달러)

지 역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세 계	12,218	14,222	17,000	13,302	14,519	9.2%
선 진 국	6,185	7,034	8,804	5,166	5,656	9.5%
유 럽	4,089	4,363	5,388	2,441	2,508	2.8%
북 미	1,663	2,264	2,634	2,036	2,499	22.7%
기 타	458	526	485	281	46	-5.8%
개 발도상국	5,326	6,482	7,248	7,294	7,784	6.7%
아 프 리 카	560	470	480	552	572	3.7%
아 시 아	3,237	4,090	4,306	4,151	4,263	2.7%
중 남 미	1,509	1,896	2,439	2,559	2,921	14.2%
대 양 주	19	26	23	33	27	-18.2%
체 제 전 환 국	707	706	948	842	1,080	28.3%

13) <참고자료 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투자액 및 순위 참고

2. 진입방식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 황

- '13년에는 그린필드 및 국경간 M&A¹⁴⁾ 모두 투자액¹⁵⁾이 증가하며 전반적 투자전망의 호전세 반영
-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6,721억 달러, M&A 투자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3,48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전의 1/3~1/2 수준으로 본격적인 투자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

진입방식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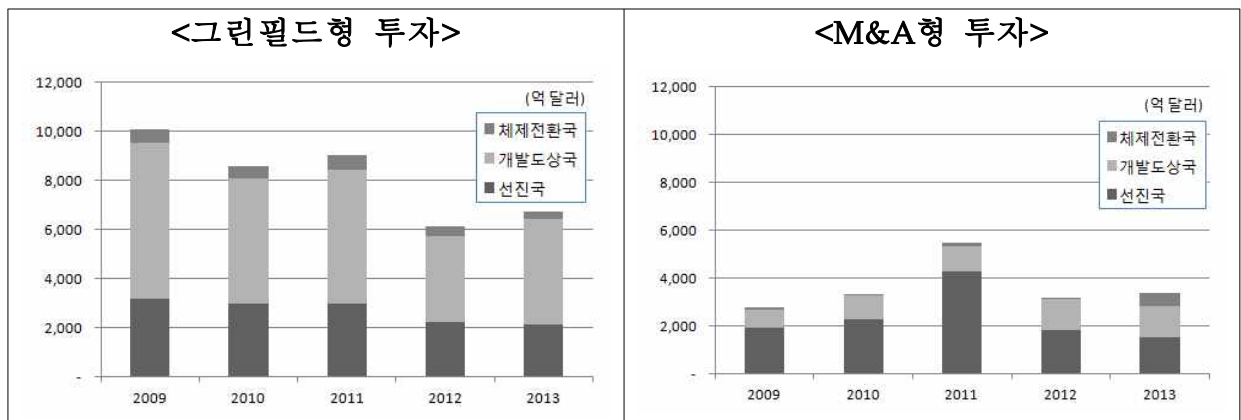
(억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그린필드	10,083	8,609	9,024	6,139	6,721	9.5%
M&A	2,854	3,494	5,561	3,317	3,488	5.2%

(2) 지역별 진입방식 동향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은 그린필드와 M&A 모두에서 세계 증가율을 상회하는 투자증가를 기록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전 영역에서 그 비중을 확대중

진입방식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구성 추이



14) 각국내 M&A를 제외한 국경간 M&A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15) 대외공시된 예상 총 투자액으로 미공시 투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송금액 및 당해연도 송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은 '13년 20대 M&A 거래 중 12개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광업과 은행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해 M&A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선진국 해외법인 인수사례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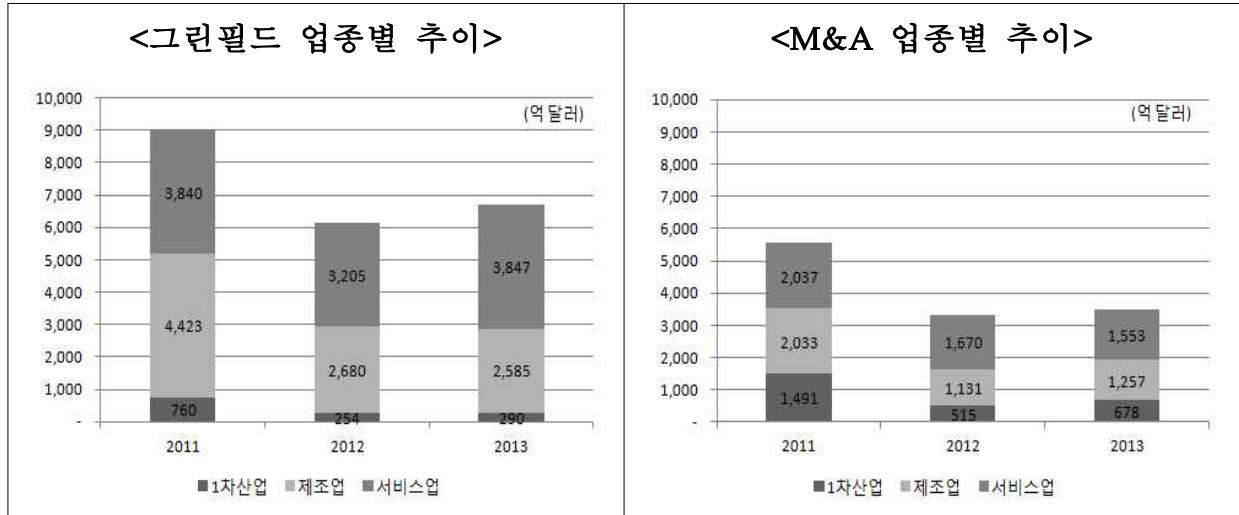
투자기업	투자대상기업	투자업종	투자규모
중국 PetroChina	이탈리아 ENI 모잠비크 법인	광업	40
중국 Sinopec	미국 Apache 이집트 법인	광업	30
인도네시아 Pertamina	미국 ConocoPhillips 알제리 법인	광업	18
콜롬비아 Bancolombia	영국 HSBC 파나마 법인	은행업	21
카타르 Qatar National Bank	프랑스 Societe Generale 이집트 법인	은행업	20

- **(그린필드)** '13년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 독일 4개국이며, 투자유입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중국 2개국에 불과
- **(M&A)** '13년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4개국이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12년 이래로 M&A 투자가 그린필드형 투자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2) 산업별 진입방식 동향

- **(1차 산업)** 그린필드 및 M&A 투자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이 1차 산업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하면서 그린필드 투자의 93%를 차지하는 한편, M&A 투자규모 또한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는 4% 감소한 반면, M&A 투자는 11% 증가하였으며, 최대 투자업종은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섬유의복산업, M&A 투자의 경우 식료품제조업이었음.
- **(서비스업)** 그린필드 투자는 20% 증가한 반면, M&A 투자는 7% 감소하였으며, 1차 산업과 동일하게 개발도상국이 그린필드 투자를 주도하며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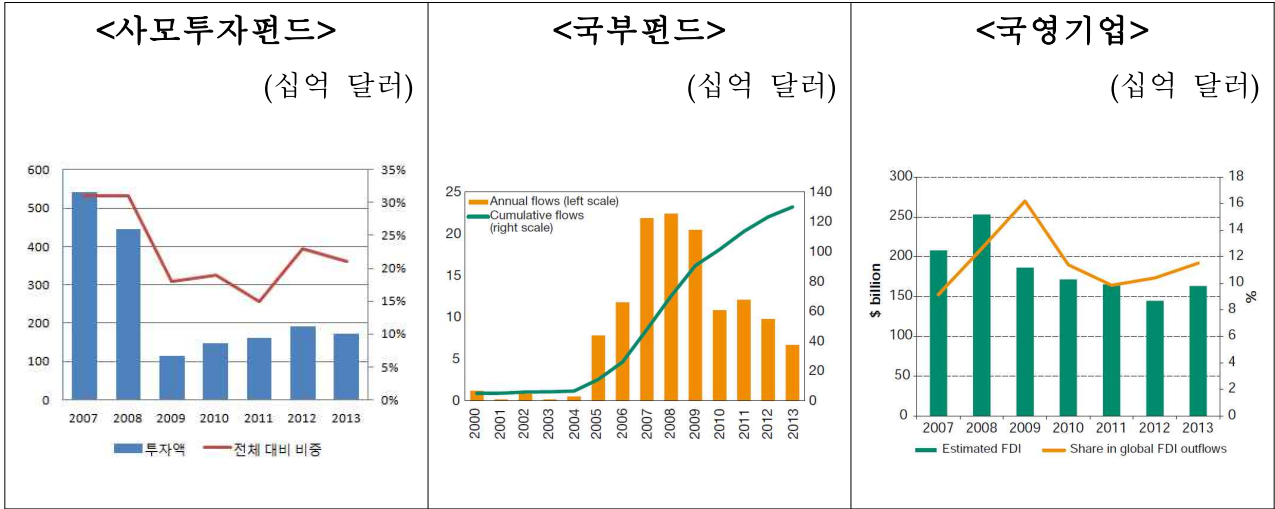
진입형태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3. 투자자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사모투자펀드) '13년에는 1,7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21%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금융위기전보다 10%p 낮은 수치
 - 중국, 브라질 등 신흥시장 위주로 투자중이며,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저조
- (국부펀드) '13년 6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세계 70여개의 국부펀드 중 일부만이 해외직접투자에 참여중으로 전체 국부펀드 운용자산 6.4조 달러 대비 비중은 2%에 불과
 - 주요 투자펀드로는 싱가포르 Temasek, 중국 CIC, 아부다비투자청, 노르웨이 GPFG 등이 있으며,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운영 중
- (국영기업)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축소해오다 '13년에 증가세로 반전하여 약 1,6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며 '14년에도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특히, BRICS 국영기업이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추진중으로 중국 CNOOC, Minmetal, 인도 ONGC, 러시아 Rosneft 등이 광업, 인프라 개발 등에 활발히 투자중

투자자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Ⅲ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유출) 우리나라의 '13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대비 4.8% 감소한 292억 달러 기록¹⁶⁾
- 유출액 기준 세계 순위가 '12년 12위에서 '13년 13위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해외직접투자 유출국의 지위 유지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 자 액	196	174	283	297	306	292
증 가 율	△11.1%	△11.2%	62.2%	5.0%	3.1%	△4.8%
세 계 비 중	1.0%	1.5%	1.9%	1.7%	2.3%	2.1%
개발도상국 비중	5.8%	6.3%	6.7%	7.0%	7.0%	6.4%
세 계 순 위	22	18	16	17	12	13

- (투자유입) 우리나라의 '13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28.7%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하며 '06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유입 국가 순위는 25위로 전년보다 9단계 상승, 세계 비중은 0.8%, 개발도상국 비중은 1.6%를 차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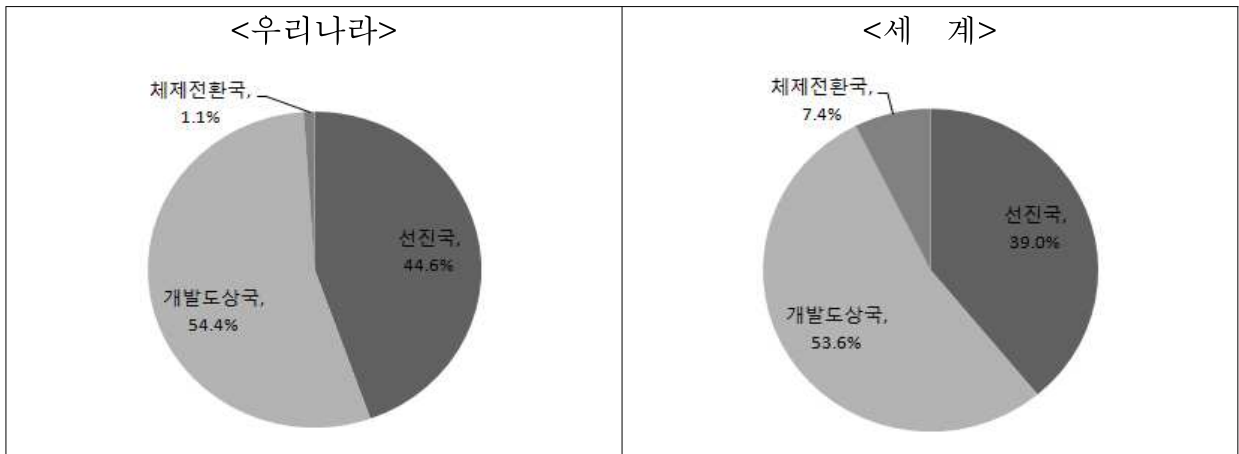
(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 입 액	112	90	95	98	95	122
증 가 율	26.7%	△19.4%	5.3%	2.9%	△2.8%	28.7%
세 계 비 중	0.6%	0.7%	0.7%	0.6%	0.7%	0.8%
개발도상국 비중	1.7%	1.7%	1.5%	1.3%	1.3%	1.6%
세 계 순 위	28	31	26	38	34	25

16) 'IV.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금액은 UNCTAD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수지 금액에 수익재투자를 반영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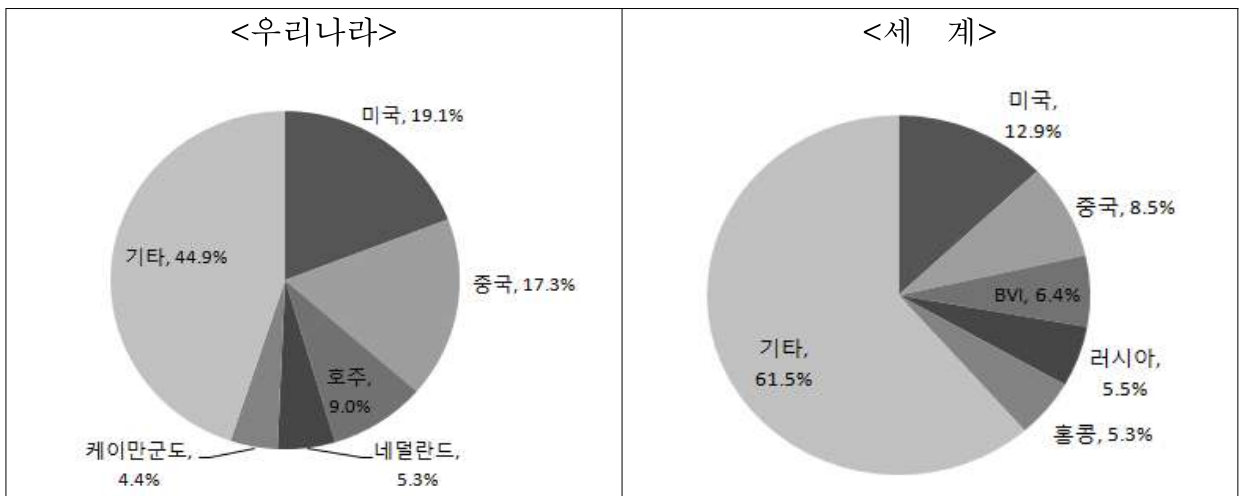
- (지역별 구성)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앞 투자비중이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이 6.3%p 낮음
- 우리나라의 '13년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비중은 선진국 44.6%, 개발도상국 54.4%, 체제전환국 1.1%로, 세계와 비교할 때 선진국 앞 비중이 5.6%p 높고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이 6.3%p 낮음.

우리나라와 세계 지역별 투자 비교



- (국별 구성) '13년 우리나라의 5대 투자대상국은 미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케이만군도이며, '13년 세계의 5대 투자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령버진군도, 러시아, 홍콩임.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특정국가 집중도가 높아, '13년도 투자대상 상위 5개국 앞 투자비중이 55.2%에 달함.

우리나라와 세계 상위 5개 투자대상국 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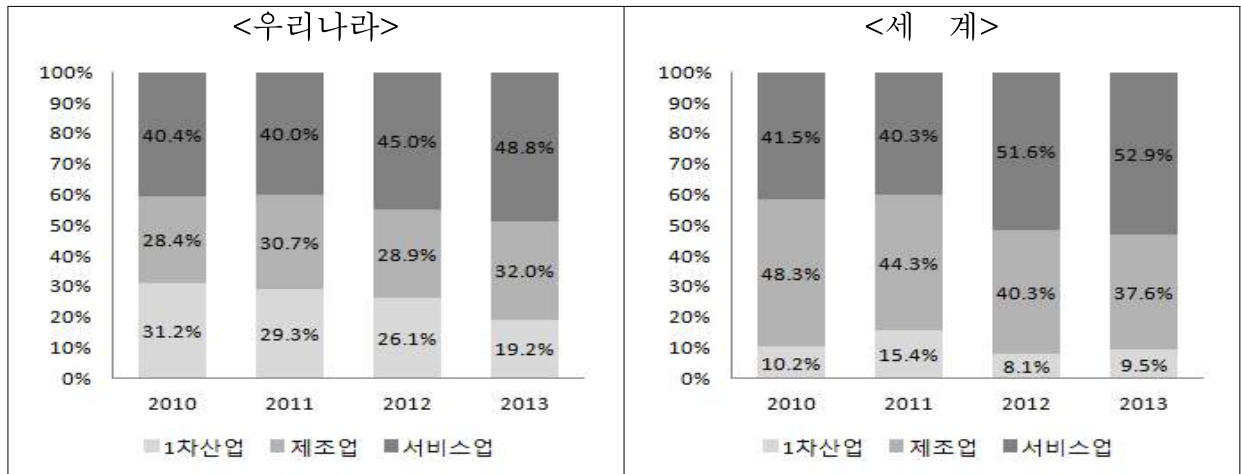


□ (업종별 구성) 우리나라는 세계 대비 광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세계 대비 제조업 투자비중은 낮으나 세계적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일정 수준 지속중

○ 세계 제조업 투자는 제약업을 포함한 화학물질, 자동차, 식료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부품, 자동차, 1차 금속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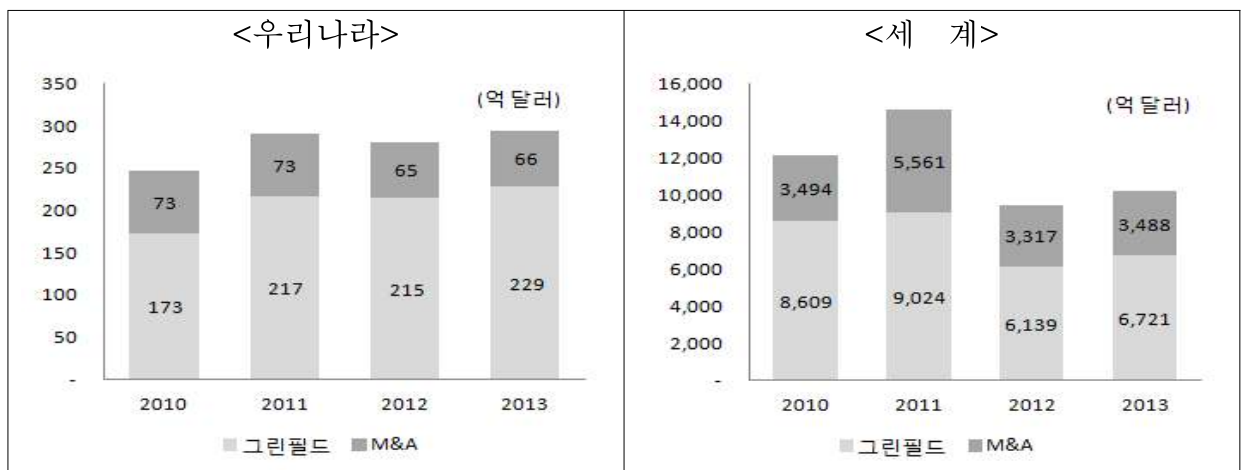
○ 서비스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세계 기준으로는 금융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

우리나라와 세계 업종별 투자유출 비교



□ (진입방식별 구성) 우리나라의 '13년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비중이 77.5%를 차지하며 세계(47.6%) 대비 월등히 높음.

우리나라와 세계 진입방식별 투자유출 비교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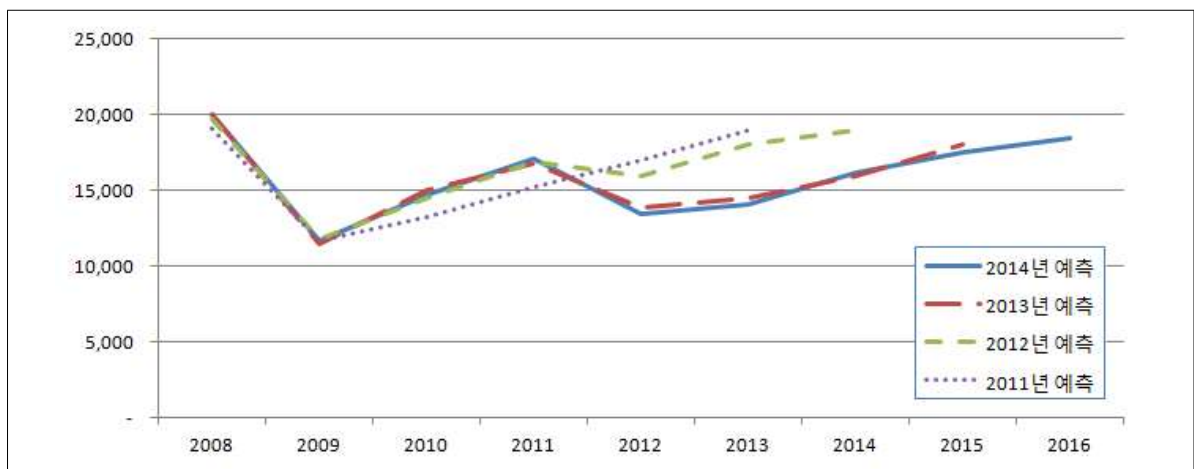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¹⁷⁾

□ (총투자규모) '16년까지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할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4」에 따르면, 세계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4년 1.62조 달러, '15년 1.75조 달러, '16년 1.85조 달러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예측치보다는 느리게 회복중
-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기업의 수익성 호전 등으로 다국적 기업은 보유자산의 11% 수준인 현금성 자산을 신규투자자로 전환할 유인 보유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

(억 달러)



- (선진국) 특히, '14년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34.8% 증가하는 등 선진국 중심의 투자 성장세 예상
- 설문¹⁸⁾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미국, BRIC, EU 등의 경제상황 호전에 힘입어 향후 3년간의 해외직접투자는 '13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

17) 「세계투자리포트 2014」에서는 「UNCTAD's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14-2016」 결과 및 UNCTAD 자체모형 예측 수치를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 전망을 작성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전망 부분도 「세계투자리포트 2014」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18) UNCTAD가 74개국 80개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 164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개발도상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대두 및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14년에는 정체, '15~'16년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양적완화의 개시는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이 거의 없었으나, 그 종료는 유동성 축소로 인한 해외자산 매각 등의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부 요인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M&A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전망

경제권역별 해외직접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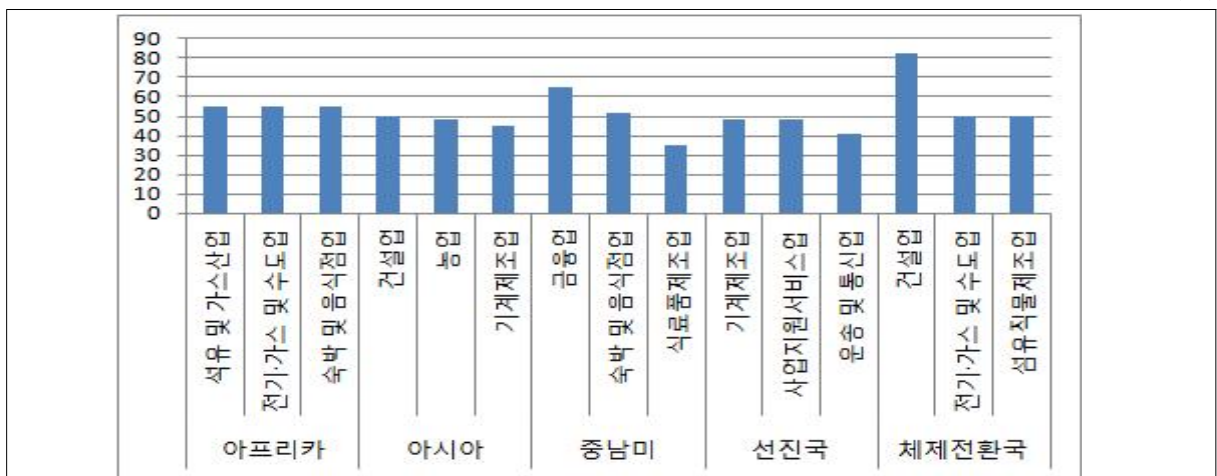
(억 달러, %)

구 분	투자액					평균	
	'12	'13	'14f	'15f	'16f	'05-'07	'09-'11
세 계	13,300	14,520	16,180	17,480	18,510	14,930	14,480
선 진 국	5,170	5,660	7,630	8,870	9,700	9,780	7,340
개발도상국	7,290	7,780	7,640	7,760	7,990	4,550	6,350
체제전환국	840	1,080	920	850	820	600	790

- (업종별) 선진국에 대해서는 컨설팅, 전산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유망업종으로 제시한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사회기반 구축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양호한 것으로 제시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전망

(%)



- 개발도상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에는 광업 및 사회기반 서비스 분야, 중남미에는 금융업 및 관광업, 아시아에는 건설업, 농업 및 기계제조업분야에의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
 - 체제전환국 앞 투자는 건설업 및 사회기반서비스 분야가 전망 양호
 - '15년 이후에는 전업종에 걸친 투자증가세가 예상되나, '14년에는 섬유, 목재, 건설자재, 금속 등 로테크(low-tech)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가별) 최근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앞 해외투자가 활발하였으나, 향후 3년간은 선진국 중심의 경기회복에 따라 선진국 앞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향후 3년간 선진국의 투자는 연평균 2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개발도상국은 '14년 △1.8%의 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등 투자증가율이 연평균 0.9%에 그칠 전망
 - 주요 투자유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순으로 전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위로 예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순위 유지
 - 주요 투자유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순으로 예상되었으며,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의 투자매력도가 증가한 반면, 멕시코, 일본의 투자매력도가 하락

주요 투자유출국 및 투자유입국 전망

	투자유출국	투자유입국
1위	미국 (2)	중국 (1)
2위	중국 (1)	미국 (2)
3위	일본 (5)	인도네시아 (4)
4위	영국 (4)	인도 (3)
5위	독일 (3)	브라질 (5)
6위	인도 (7)	독일 (6)
7위	프랑스 (6)	영국 (9)
8위	캐나다 (8)	태국 (8)
9위	한국 (9)	베트남 (11)
10위	브라질 (-)	러시아 (11)

* 괄호안은 전년도 순위

V

시사점

- '14년 이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되는 바, 선진국의 수요에 대응하는 해외투자전략 수립 필요
- 선진국 앞 투자유입이 '14년에 전년대비 35% 증가하면서, 3년 후인 '16년에는 세계 유입액의 54%가 선진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
- '13년 우리나라의 선진국 앞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46.5억 달러), 광업(25.7억 달러), 제조업(12.0억 달러), 도소매업(10.4억 달러) 순인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수혜를 받는 업종 위주로 신규투자 실시 및 기존투자 재편 추진
- 특히, 성숙한 시장에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한 M&A형 투자를 적극 고려하고 이에 대한 금융제공, 거래주선 등의 지원역량도 강화할 필요
- 현지법인을 원료조달창구나 제품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초보적 투자방식에서 발전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업종 다변화 및 현지화 필요
- '13년 세계 산업별 투자비중은 1차 산업 5.5%, 제조업 34.7%, 서비스업 59.8%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산업 19.1%, 제조업 32.1%, 서비스업 48.8%으로, 세계 대비 광업 중심의 1차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음.
- 해외법인이 현지수요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현지에 공급하는 서비스업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신규 수요를 개척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익기반을 강화
- 특히, 서비스업 중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통신업, 운수업 등에서 세계 대비 투자비중이 낮음. 이들 업종은 주로 국가기간산업인바 높은 진입장벽과 자국기업 보호정책으로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일단 진출한 후에는 지속적인 저변확대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참고자료 1>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미 국	386,724	1	366,940	1	338,302	1
일 본	107,599	2	122,549	2	135,749	2
중 국	74,654	7	87,804	4	101,000	3
러시아	66,851	8	48,822	8	94,907	4
홍 콩	95,885	5	88,118	3	91,530	5
영국령 버진군도	56,414	10	64,118	6	68,628	6
스위스	47,822	13	45,037	9	59,961	7
독 일	80,971	6	79,607	5	57,550	8
캐나다	52,148	12	55,446	7	42,636	9
네덜란드	39,502	15	267	69	37,432	10
스웨덴	29,861	16	28,951	13	33,281	11
이탈리아	53,629	11	7,980	26	31,663	12
대한민국	29,705	17	30,632	12	29,172	13
싱가포르	23,492	18	13,462	20	26,967	14
스페인	41,164	14	-3,982	188	26,035	15
아일랜드	-1,165	188	18,519	17	22,852	16
룩셈부르크	7,750	32	3,063	35	21,626	17
영 국	106,673	3	34,955	11	19,440	18
노르웨이	19,880	21	19,782	16	17,913	19
대 만	12,766	24	13,137	22	14,344	20
오스트리아	21,878	19	17,059	19	13,940	21
말레이시아	15,249	22	17,115	18	13,600	22
멕시코	12,636	25	22,470	14	12,938	23
케이만군도	11,649	28	13,262	21	12,704	24
칠 레	20,252	20	22,330	15	10,923	25
덴마크	12,610	26	7,976	27	9,170	26
쿠웨이트	4,434	40	3,231	34	8,377	27
카타르	6,027	35	1,840	43	8,021	28
콜롬비아	8,304	30	-606	184	7,652	29
태 국	6,620	34	12,869	23	6,620	30

<참고자료 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 국	223,759	1	160,569	1	187,528	1
중 국	123,985	2	121,080	2	123,911	2
영국령버진군도	58,429	8	72,259	4	92,300	3
러시아	55,084	9	50,588	8	79,262	4
홍 콩	96,125	4	74,888	3	76,633	5
브라질	66,660	5	65,272	5	64,045	6
싱가포르	50,368	11	61,159	6	63,772	7
캐나다	39,669	12	43,025	10	62,325	8
호 주	65,209	6	55,518	7	49,826	9
스페인	28,379	16	25,696	13	39,167	10
멕시코	23,354	20	17,628	17	38,286	11
영 국	51,137	10	45,796	9	37,101	12
아일랜드	23,545	18	38,315	11	35,520	13
룩셈부르크	18,116	25	9,527	33	30,075	14
인 도	36,190	14	24,196	15	28,199	15
독 일	59,317	7	13,203	24	26,721	16
네덜란드	21,047	21	9,706	31	24,389	17
칠 레	23,444	19	28,542	12	20,258	18
인도네시아	19,241	24	19,138	16	18,444	19
콜롬비아	13,405	30	15,529	20	16,772	20
이탈리아	34,324	15	93	162	16,508	21
태 국	3,710	51	10,705	28	12,946	22
터 키	16,171	27	13,224	23	12,866	23
말레이시아	12,198	33	10,074	30	12,306	24
대한민국	9,773	38	9,496	34	12,221	25
이스라엘	10,766	35	9,481	35	11,804	26
오스트리아	10,618	37	3,939	49	11,083	27
케이만군도	14,702	28	6,808	42	10,577	28
UAE	7,679	41	9,602	32	10,488	29
페 루	8,233	40	12,240	25	10,172	30